

약방의 감초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섬유는 왁시한 감을 주기 때문에 혐오스럽다. 왁시라고 함은 양초와 같이 보이는 손촉감과 피부 촉감이다. 물론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섬유로 만든 실로 짠 원단은 피부 촉감이 나쁘고 옷맵시가 나빠 좋다고는 느낄 수 없고 착용감도 좋다고는 할 수 없었다. 땀을 흘리면 땀은 흡수되지 않고 흘러내리고 살갗에 착 달라붙어 떨어짐이 나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참으로 불쾌하다. 이것이 등장할 당시의 폴리에스터의 인상이었다.

폴리에스터를 제조하는 것은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전제로 한 거대한 장치산업이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들은 폴리에스터와 면을 65%:35%의 비율로 혼방하여 셔츠지를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세탁하여 걸어두면 곧바로 마르고 다림질 없이 입는다고 하는 이미지와 세탁의 용이함 등의 편리함에 의하여 대중적으로 사용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폴리에스터는 천연섬유다움을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는 폴리에스터 독자의 아름다움·양호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는 60여년에 걸친 역사의 대부분은 천연섬유에서 배운 노력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실크라이크·올라이크·코튼라이크·리넨 터치·스웨드 터치·실크조라고 부르는 내추럴 룩이다. 때로는 진짜에 유사하면서 진짜에는 없는 독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폴리에스터가 오래도록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가짜는 유사한 것만으로는 값싼 존재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며 이렇게 폴리에스터의 단점을 다른 소재와 더불어 보다 나은 제품으로 만들어야만이 진정한 가치와 지속적인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양모 옷감의 품질 표시가 모 98%, 폴리에스터 2%인 경우라면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폴리에스터를 넣고 있다고 생각하여도 좋다. 2~3%의 혼용율이라

함은 그러한 목적 효과를 얻기 위함이고 그것에 의하여 착용감이라던가 태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혼용율이 5%를 초과하면 태가 딱딱하게 된다. 10%가 되면 튼튼함보다는 원료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여도 된다. 양모가 70%이고 다른 섬유가 30%의 혼용율이라면 값이 싼 옷감이 된다. 70%의 양모가 혼용된 것은 품질이 저하된다. 이러한 물건은 값싼 물건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양질의 양모를 사용했더라도 평가를 좋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저질 양모를 사용했다고 하는 까닭이다. 고급, 초고급이라고 하는 것은 양모 100%이다. 그런데 혼용율이라 함은 사용섬유의 총 중량에 대한 중량비이다. 제직사의 올 수의 비율은 아니다. 양모옷감은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와의 조합에 의하여 가는 양모사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얇은 옷을 용이하게 만들게 되었다. 상쾌한 피부 촉감도 마찬가지이다. 부드러운 나일론도 혼용되고 있다. 이것은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것보다도 값이 싸다. 나일론을 사용한 옷감의 다림질은 온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태가 손상되기도 하고 봉목을 보기 흉하게 하기 때문이다. 폴리에스터와 같은 온도에서 다림질하였기 때문이다.